Q1.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제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게 된 계기? / 언제 준비를 시작했고 총 준비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합격자 1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제도에 대해서는 2학년 재학 중 정부행정학부 선배님을 통해 알게 되었음. 이후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지역인재 제도 설명회를 접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높은 학점이라는 강점을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함.
-2차 시험 행정법 과목을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국가직 7급 제도와는 다르기에 그것이 장점이라 생각되어 준비하게 됨.
-작년 7월,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중간에 휴식기를 가지기도 했고, 교내 면접 응시와 헌법 기본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있어 총 준비 기간은 약 8개월 정도임.

합격자 2
-1학년 때 앞선 합격자 선배님들의 설명회를 듣고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음.
-그동안 공무원이라는 진로를 막연히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본전형은 일반 전형과 달리 시험 과목 개수가 적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준비하기에 덜 부담스럽고 최종 면접도 타지 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준비하게 되었음.
-4학년 전까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토익 등 자격 요건을 갖추어두었고 4학년 1학기에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필기 준비를 시작하였음. 준비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총 1년 2개월 정도임.

합격자 3
-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제도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부터 알고 있었음.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전역 후 공직을 꿈꾸게 되면서 준비하게 되었음.
-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임. PSAT은 2023년 9월부터 준비하였음. 따라서 총 준비 기간은 PSAT 기준으로 하면 1년 반 정도임.

Q2.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의 긴 과정에서 '몇 월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준비했다' 처럼 언제 무엇을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합격자 1
-2024년 1월 헌법 기본 강의를 한 달 수강하며 완강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7월에는 조훈 선생님의 계산 특강을 수강했음.
-그리고 8월까지는 세 과목 전부 기초 강의를 수강했는데 기초 강의에서는 민간 경력 채용 시험이라 불리는 쉬운 유형의 기출 문제를 공부하였음.
-9월에서 10월까지는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이때 국가직 7급 그리고 5급 기출 문제를 조금 다루기 시작하였음.
-11월부터는 심화 강의를 수강해서 12월까지 5급 기출 문제와 LEET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

를 풀었음.
-2025년 1월부터는 베리타스 학원의 PSAT캠프에서 생활을 하며 학원 자체의 모의고사와 법률 전원 모의고사를 한 주에 총 2회 풀었음.
-2월에는 헌법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는데 기출 문제를 풀고, 다음 날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음.

합격자 2
-PSAT 진입 점수가 0점에 가까웠음. 문제 접근 방식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인강에 많이 의지했고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전까지는 기출 문제 푸는 것이 두려웠음.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인강만 들으며 공부하였음.
-결론적으로 인강보다 기출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실력을 향상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함.
-강의를 여러 번 보기보단 어느 정도 기본기를 확립한 후 기초를 회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언어 논리 기출 문제 10개년 분량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기출 7개년 분량을 한번 풀어보고 꼼꼼하게 분석함.
-2025년 1월부터는 최신 5개년 기출 문제를 반복하여 풀었고 총 3회독을 하였음. 동시에 1월부터 매주 한 회차씩 법률저널 모의고사를 치렀음.
-헌법 분야는 9월에 기본 강의를 들었고 내용이 잊혔을 때쯤인 2025년 1월 초에 진도별 모의고사 특강을 하나 더 수강하고 기출 문제 5개년 분량 한 번 풀었음.

합격자 3
-1년 반 정도 준비하여서 교내 면접에서 한 번 떨어졌음. 2023년 9월~10월의 경우 인강을 듣고 복습하고 그다음 인강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중점으로 이론을 습득하였음. 이후 이론을 얼마나 구체화하였는지 알기 위해 기출 문제를 풀었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음.
- 11월부터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해당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족한 이론과 유형을 보충 학습하기 위해 또 다른 학습 자료를 통해 공부하였음. 예를 들어 '언어 논리'에서 논리 퀴즈 부분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여 "이해왕의 논리 퀴즈 매뉴얼"을 구입하여 공부하는 등의 보충 공부하였음.
- 12월에는 헌법 강의를 기본적으로 수강하면서 준비하였음. 또한 모의고사를 반복하여 풀어보면서 실제적인 시험 감각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음.
- 1월에는 교내 면접을 대비하여 자소서를 작성하고 수정하였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준비하였음.
- 그러나 교내 면접에서 탈락하여 잠시 휴식기를 가지다 2월 말부터 감각을 다시 살리는 느낌으로 기출 문제를 풀었음. 3월에 있는 5급 시험을 경험 삼아 3월부터 2024년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였음.
- 4월과 5월에는 여러 인강 OT를 수강하면서 스스로에게 맞는 강사를 찾아 인강을 수강하여 공부하였음.
- 6월~8월에는 인강 강의 자료들로 공부하였음. 9월과 10월에는 강사분들이 알려준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출 문제를 풀며 노력하였음.

- ‘자료 해석’의 경우 강사분의 학습지로 복습한 다음, 비슷한 유형의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적용할 방법과 원리들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부하였음.
- 11월~12월에는 기출 문제를 풀고 다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헌법 공부를 복습하였음.
- 1월에는 자주 틀리는 유형들의 문제나 부족한 부분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음. 2월에는 실전을 대비하여 40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풀며 모의고사를 자주 풀어보았고 실제 현장에서 쉬면서 시장 감각을 키우며 공부를 하였음.

Q3. 교내선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내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셨었는지?

합격자 1

-토익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은 기본 요건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을 추천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소서 양식을 볼 수 있는데 그 양식이 지금까지 크게 변한 적이 없기에 자소서는 써두는 것을 추천함.

-추천서에 대해서도 조금 가깝게 지내는 교수님께 지역 인재 제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교수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음.

-특히 지원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기에 기존 추천서를 받으려고 했던 교수님이 해외 출장을 가셔서 받지 못한 불상사가 있었음. 따라서 교수님께 미리 어필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수님께서 초안을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교내 면접에 대해서는 본인, 공무원, 필기 세가지로 나눌 수 있음.

-‘본인’이라 함은 자소서에 쓴 교내 활동, 교외 활동에 관한 질문 등 갈등 관리와 같은 질문이 있음.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공직 가치, 공무원의 의무 등과 같은 기본적인 공무원에 관한 지식들을 요구함. ‘필기’는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인데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왔으며, 현재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음. 교내 면접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비슷하게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필기’에 관한 답변이라 생각함.

-학교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을 추천해줘야 하기에 높은 모의고사 성적이나 높은 기출 성적이 안정적인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음.

-실제 모의고사 성적이 어떤지 물어보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고, 반면 가장 취약한 과목에 관한 질문과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음.

-예를 들어 헌법 분야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하여 묻는 질문과 상황 판단 영역에서 ‘콜라 문제’에 대해 질문받았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검증에 대해 잘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점수와 취약 과목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필기 질문임. 이 점을 위주로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임.

합격자 2

- 자소서 교내 활동란에는 단과대 학생회 활동을 작성하였고, 교외 활동란에는 사회공원 서포

터즈와 지역 공모전 활동 그리고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작성하여 열정과 봉사 정신을 보여주고자 했음.

- 교내 면접에서 기억하기로는 간단한 질문들만 받았음.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희망 부처와 이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꼬리 질문들을 받았음. '콜라병' 문제에 대해 '페트병'으로 바꾸어 똑같은 문제를 주셨음.
- PSAT 모의고사 점수를 물어보셨음. 필기 점수가 가장 중요했을 것임.
- 면접관님들 앞에 서게 되면 긴장되어 외웠던 자기소개도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외워가는 것보다는 평소에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음.

합격자 3

- 교내 면접을 총 두 번 응시했었음. 교내 선발을 위해서는 1분 자기소개와 교내 면접 질문 리스트를 보고 답변을 준비하면서 교내 면접에 대비하였음.
- 자소서를 정독하면서 나올 법한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였음. 그러나 첫 번째 교내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스스로 고민한 결과 PSAT에 대한 어필이 부족했던 것이라 느꼈음. 두 번째 교내외 면접을 준비했을 때는 PSAT에 대한 강점을 어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였음.
- 교내 면접 시에는 자기소개와 지역 인재 7급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휴학하고 준비하는 이유, 자소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희망 부처와 그 이유, 구체적인 PSAT 시험 준비 방법, 시험 성적 등에서 질문을 받았음. 더불어 부족한 PSAT 과목과 보완 방법, 성적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음.
- 특이했던 질문은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질문이었음. '상황 판단' 형식의 질문도 있었음. 작년 교내 면접에서 탈락했던 이유와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음.

Q4. PSAT 공부량은 어느정도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루틴과 PSAT 공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합격자 1

- 1월부터 PSAT 캠프에 들어갔었는데 그전에는 휴일 없이 4시간에서 9시간 정도 공부하였고 평균적으로는 7시간 공부하였음.
- 인강에 많은 의존을 한 편이라 여러 과목을 병행하기보다 2주 정도는 같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음.
- PSAT 인강이라고 하면 베리타스, 한림법학원, 프라임법학원 이렇게 세 학원이 유명함.
- 5급 PSAT과 같은 시험을 보는 것이기에 5급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함. 이유는 7급 횟수로 묶여 있는 교수님들보다 5급 강의에서 더 유명한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
- '지역인재 7급 다음(DAUM) 카페'를 통해 더 자세한 PSAT 공부량, 루틴, 합격 수기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무엇보다 기초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특히 자료 해석은 양으로 승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볼 것을 추천함. 반면 언어 논리 과목은 확실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언어 논리는 풀다 보면 답이 기억나기도 해서 양보다는 한 지문

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공부하였음.

합격자 2

- 쉬는 날을 딱히 정해두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려고 노력하였음. 학업과 병행했기에 학기 중에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에서 자정까지 공부하였으며, 방학에는 오전 9시에 도서관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공부하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집 앞 독서실에 가서 하루에 총 11시간 정도 공부하였음.
- 하루에 목표 공부량은 없었고 시간이 될 때까지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을 돌아가면서 기출문제 1개씩 풀고 분석하기를 반복하였음.
- 자료 해석, 계산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계산 연습은 매일 하였고, 비타민과 좋은 강사님의 계산 훈련서를 이용하였음. 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고 인강을 수강하였음.
- 많은 강사님의 여러 강의를 수강했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언어 논리'는 베리타스 신성우 강사님의 기초와 기본 강의, '자료 해석'은 베리타스 좋은 강사님의 기초 기본 심화 강의와 개성 특강, '상황 판단'은 윌비스 최원석 강사님의 기본 강의, '헌법'은 베리타스 강성민 변호사님의 헌법 강의와 모의고사 특강만을 수강하고 싶음.
- 기출 문제는 고시 4989 사이트에서 10개년 분량 기출 문제를 제본한 모음집을 구매하여 공부하였음.
-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의 기출 분석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여 강사님의 해설을 들었고, '상황 판단'은 'PSAT 푸는 밤돌이'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음. '헌법'은 핸드폰에 '헌법 OX'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틈틈이 OX 퀴즈를 풀었는데 이게 암기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오답만 모아서 풀 수 있어 좋았음.

합격자 3

- PSAT 공부는 하루에 8시간 하였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였고 일요일은 쉬었음. 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았고 인강을 수강하면서 공부하였음.
- 헌법의 경우 본 전공이 공공사회학 전공이지만 이중 전공으로 정부행정학을 선택하여 헌법 1, 2과목을 수강하며 대략적인 준비를 하였음.
- 이상용 강사님의 헌법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기본 개념을 숙지하였음. 또한 '헌법 OX'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확인하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음.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나 자주 틀리는 실수 등을 한 노트로 다시 정리하여 시험 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
- '언어 논리'의 경우 독해와 논리 퀴즈로 볼 수 있는데, 독해는 박은경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음. 이 강의를 통해 독해의 기본적인 능력을 배울 수 있었음. 이후 "고병민빈의 읽을거리" 등과 같은 것을 풀어보면서 공부하였음.
- 논리 퀴즈와 같은 문제들은 "이황해의 논리퀴즈 매뉴얼"과 "아야카 매뉴얼"을 4회독, 밤돌이의 "논리 퀴즈 모음집"을 3회독 하였음.
- 이 외에도 배경 지식을 쌓고자 수능 지문도 하루에 몇 개씩 보았음. 또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한 개의 노트로 정리하였음.
- 자주 틀리는 유형을 보완하기 위해 니트에 과학 지문 모음집을 풀어보거나 기존 기출 문제들의 과학 질문의 인과관계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는 10분~20분 내에 풀어보고 시간 내에 풀지 못하면 다시 한번 2분간 풀어보고 풀지 못하였다면 틀린 문제로 취급하여 문제 유형과 원리를 파악하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였음.
-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틀린 이유를 정리하여 적었음. 1)중도 포기한 문제라면 어느 지점에서 어려움을 느꼈는가? 2)어려워 보여 풀지 않았다면 실제적으로 어려웠는가? 3)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 4)시간이 없어서 틀렸다면 시간 단축 방법 모색 5)실수라면 어떤 실수였는가? 와 같이 오답의 이유를 5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음.
- '자료 해석'의 경우 신성우와 윤진원 강사분들의 강의를 수강하였고 강사분들의 학습지를 3회독 하였음.
- 연산 연습의 경우 "비타민"이나 "야옹이"를 활용해서 매일 꾸준히 연습하였고 "알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할림이 해제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연습하였음.
- '상황 판단'에서 법조문에서는 밤돌이의 "법조문의 모음집"으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원리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음. 퀴즈의 경우 분류하여 약한 유형에 대해서는 더 많이 풀어보았음.
- 기출 문제도 분석하며 많이 풀어보았음. '판단'의 경우 선고안이 중요하기에 더 중요하게 보았음. 정리하자면, 기출 문제는 10개년 분량을 5회독 함.
- 최종적으로 매달 첫째 날에 모의 테스트를 하면서 검증, 피드백하면서 얼마나 적용하였는지 검증하였음.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모의고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실전 감각을 키웠음.
- 이외에도 "노션"이라는 페이지를 활용하여 7급을 위한 준비나 전략을 하나의 웹사이트에 정리하여 준비하였음.

Q5.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합격자 1

- 면접 공고는 5월 1일~2일에 올라오는데 행정직은 첫날, 기술직은 둘째 날에 면접에 응시하게 됨.
- 질문은 세 가지 유형이 있음. 1)경험 2)상황 3)개인 발표가 그것이고, '경험'이란 낯선 이와의 팀 과제 시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임. 교내 CB 프로그램 멘토를 했기 때문에 신입생들과 함께 멘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다루었음.
- '상황'이란 현재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본인이 주무관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하는 질문임. K-뷰티 신제품이 개발되는데 임상 실험을 거쳐야하나 장기화로 인해 임상 실험을 면제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면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과제임. 이에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제품, 민감성 피부용을 제외한 바디 크림과 같은 것은 임상 실험을 면제한다고 답변하였음.
- '개인 발표'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정부 지원 방안 개념 및 현황 문제점 대책 방안을 발표하는 문제였음.
- 면접관 세 분이 계셨고 세 분 모두 반응을 잘 해주셔서 웃기도 하셨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후기들도 좋았다고 함.
- 우리학교의 경우 세종이라 **비초과?????** 지역이라 면접에 대한 부담이 심하지 않아서 분위기는 다 괜찮을 것임. 다만 손목시계는 꼭 챙기시길 권장함. 면접 시 타이머를 앞에 세워두셨는데 잘 보이지 않았고 타이머도 켜주지 않았음. 5분 동안의 개인 발표 과제 시 손목시계가 있으면 도움이 됨.
- 피티윤 강의를 수강하며 주 1회 스터디원들과 함께 비대면 스터디도 진행함.

합격자 2
- 피티윤 강의를 수강하며 면접을 준비하였음.
- 대면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비대면을 병행하시기에 어디서든 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 이론 강의 후에는 ZOOM을 통해 강사님과 실제 모의 면접처럼 질의 응답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짐.
- '경험 과제'에서 주어진 주제에 맞는 경험을 바로 떠올리는 것이 어려웠기에 대표적인 경험 4가지를 선정하여 당시 상황과 대처 능력을 정리해보고 어떤 주제가 나와도 네 가지 경험 안에서 골라 쓸 수 있도록 답지를 돌려 쓰는 연습을 하였음.
-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고 강의만 수강함.
- '경험', '상황', '개인 발표' 모두 똑같은 주제로 보았고 답지를 기반으로 질문을 받음. '경험 과제'에서는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대처 방법에 관한 질문을 주셨음. '상황 과제'는 임상 실험 심의 규제 완화에 대해 소비자 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담당 주무관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리적으로 답변해야 함. '개인 발표'도 자립 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음.
- 남성 면접관 세 분이 계셨는데 모두 친절하시고 미소를 지어주시기도 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음.

합격자 3
- 면접 학원에 직접 가서 준비하였음. 학원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OT를 듣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됨. 비 초과권에서는 면접이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SAT 공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충분히 면접까지 통과할 수 있음.
-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이 있음. 1)경험 과제 2)상황 과제 3)개인 발표임.
- '경험 과제'의 경우 친분이 없는 사람과 발생한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음. K-뷰티의 약진으로 화장품의 임상 면제와 관련한 해결책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었음.
- '개인 발표'의 경우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음. 이외에도 희망 부처나 공무원 지원 동기 등을 질문함.
- 본인은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학원에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대면으로 만나 실제 면접처럼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터디 이후 상호 간 보완점과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로 준비하였음. 이후 집에서는 녹음 면접 파일을 들어보며 말투나 발성을 피드백하기도 하였음.
- 개인적으로는 '경험 과제'가 어려웠는데 각자 경험했던 것을 자소서 쓸 때 미리 정리하면 면

접 준비할 때 '경험 과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 수월할 것임.
- 예를 들어 갈등을 해결한 경험, 봉사 정신을 발휘한 경험, 고난을 극복한 경험,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었던 경험, 원칙 준수의 경험 등 분류하여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
-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기출 문제를 두고 서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스터디원들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답변이 될지 고민해보시길 권장.
- 면접 분위기는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다양함. 면접 당시 면접관 세 분 중 한 분이 굉장히 부드러우셔서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렸음.

Q6.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오셨던 적이 있으신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면서 멘탈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합격자 1
-올해와 작년 봤던 면접에서 탈락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불안감이 컸음. 특히 지금 시기가 가장 슬럼프가 오기 쉬울 것임.
- 교내 면접에서 선발되지 않으면 공부했던 것들이 소용이 없어지는데 계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음. 그럴 때는 아예 하루 공부를 하지 않기도 했음. 아예 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에서 빠져나와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더 커져서 결국 다시 책을 잡게 되었음.
- 네이버나 블로그에 합격 수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길 추천함.
- 공부는 하지 않지만,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음. 개인적으로는 불합격 수기도 많이 읽어보았음. 불합격 수기에는 정말 뼈저린 후회와 조언이 있기에 작성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음.

합격자 2
-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하면서도 나날이 실력이 늘고 있는 건지 의심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에 힘이 빠졌던 것 같음. 하지만 묵묵히 공부해 나가는 것 외에는 떠오르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였음.
- 걱정하다가도 공부를 시작하면 집중하게 되었고 결국은 열심히 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음.
- 전형적인 방법이긴 하나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을 하였는데 몸을 움직이니 정신도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었음.

합격자 3
- 교내 면접에서 탈락하였을 때 슬럼프가 와서 한동안 공부를 쉬었음. 그러나 공직을 꿈꾸게 된 계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
- 슬럼프가 왔었을 때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기보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며 쉼을 가졌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는 합격하여 설명회를 하는 상상이나 희망 부처에 다니는 상상을 하며 극복하고자 했음.
-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구와 성경 말씀을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자 했음.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종교적으로 많은 격려와 힘을 받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

간을 보내면서 슬럼프를 극복하였음.

Q7. 지역인재 7급을 준비하시면서 공기업 및 다른 취업준비를 같이 병행하셨나요? 만약 지역인재 7급을 준비할 경우 한 쪽에만 올인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합격자 1

- 교직 이수를 선택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음. 그래서 임용시험을 병행할까 고민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 지역 인재 7급 시험이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하면 난이도가 괜찮은 편이나 그렇다고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임.
- 다른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 기간만 늘어날 뿐 1년 이내로 해서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함.
- 임용의 경우 지역 인재 7급 시험에 대한 차선책으로 두기만 하였고 다른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병행한 적은 없음.
- 지역 인재 7급 시험에 올인한다고 해서 다른 진로에 대해 손해 볼 것은 전혀 없음.
- 높은 학점이라는 강점을 살려 다른 진로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PSAT 공부를 하다보면 NCS 능력도 개선될 것이기에 공기업으로도 방향을 틀기 쉬울 것임. 때문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올인해서 준비하시되 실패했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고 공기업으로 방향을 바꿔도 괜찮음.

합격자 2

- 지역 인재 7급 시험에만 집중하였음. 공무원이 되고 싶었고 이번에는 꼭 합격할 것이라 믿고 다짐하였기 때문임.
- PSAT 하나만으로도 준비하기 벅찼기에 한 가지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PSAT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하였음.
- 병행하면서 두 가지 다 열심히 준비하여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면 두 가지 모두 불확실하게 될 경우를 더 걱정했기 때문에 다음 일정까지 1년 정도의 잉여 시간을 활용하여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임.

합격자 3

-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함. 본인의 경우 다른 취업 준비와는 병행하지 않았음. PSAT 점수가 현재 부처 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올인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상위 10% 안에 안정적으로 있는 상황이다보니 올인해서 준비하고자 마음을 먹었음.
- 시험 치고 있던 시기가 PSAT 점수 커트라인이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었고 자격요건이 졸업 후 1년이었다가 3년으로 변경되면서 학교별 추천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여서 올인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올인하였음. 그러나 불확실하기에 각자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음.

Q8. 지역 인재 7급 선발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궁금합니다. 선발 시험을 준비하던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궁금합니다.

합격자 1

- 2025년은 1월 3일~9일까지가 지원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기간이었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됨. 필기시험이 임박한 기간이다 보니 자소서에 힘을 빼지 말고 미리 생각하고 써두면 더 좋음. 내년에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자소서와 추천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부담이 덜 할 것임.
- 필기 점수는 고고익선임. '나만 합격하면 돼'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결국 합격하고 원하는 부처에 가기 위해서는 필기 점수가 높아야 좋음.
- 교내 선발을 위해서도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성적이 있다면 그것만큼 필기하기 좋은 장치는 없으니 미리 좋은 점수 받아두시길 권장함. 반대로 본인은 모의고사 경험이 많았는데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음. 모의고사 백분위가 실제 시험과 연관이 있다는 보장은 없음.
- 2027년부터는 PSAT이 지금과는 달라져서 지금은 한 문제당 문제 100점이 모두 다 동일하게 평가되는데 2027년부터는 문항별 차등 배점이 도입되어 어려운 문제를 맞추어야 더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형식으로 개편됨.
- 지역 인재 7급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림.
- 본 시험은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하는 시험이 아님. 자료 해석 점수가 낮아서 고민이 되었음. 그러나 시험 결과를 받았더니 높은 언어 논리 덕분에 자료 해석을 어느 정도 메꾸었다고 볼 수 있음.
- 본 시험은 총합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하니 어느 한 과목이 점수가 낮더라도 개의치 말고 오히려 자신 있는 과목의 강점을 살려서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람.

합격자 2

- 진입 점수가 0점이었음. 하지만 노력만으로 최종 합격까지 결국은 해낼 수 있었음.
- 어떤 어려움과 마주해도 노력한다면 7급 지역 인재 전형은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1월 교내 선발이었음. 이 시기에 자소서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필기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음.
-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자소서 양식을 다운하여 틈틈이 채워보시길 바람.

합격자 3

- PSAT의 점수가 높다면 아무래도 본 전형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에 PSAT에 더 집중하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함.
- PSAT이 재능의 영역에 가까운 부분이 많다고 하나, 노력의 영역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임.
- PSAT는 결국 실수를 줄이는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라 생각함. 실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어떤 전략이 나에게 맞는지 등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피드백을 통해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임.

- 추가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때 출제자의 심리를 생각하여 출제자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어떤 출제 원리들이 사용되는지 생각하고 분석하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함.
- '내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주면 됨. "홍재전서" 175권 정조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일에서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

<u>추가질문</u>

Q1. 지역인재 7급 커트라인이 몇 점대였나요?

합격자 1

- 올해 1차 커트라인은 210점으로 동점자까지 모두 합격하였고, 작년에는 215점이었음.
- 작년에 비해 컷이 내려가긴 했는데 문제 난이도 자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경향이 있음.
- 응시생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커트라인 기준으로 조금 높으면 응시생들이 안심할 수 있다 보니 올해 커트라인은 210점이었지만 215점 정도를 넘긴다면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 다음(DAUM) 지역인재 7급 카페에 들어가면 역대 합격 커트라인과 지역별 커트라인을 확인할 수 있음.
- 모의고사를 볼 때에는 백분위 중 35% 안에 들면 안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점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됨.

Q2. 기본서를 풀고 해설을 자주 보다 보니 기출을 풀었을 때 외워서 푸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격자 1

- 본인도 외워서 푸는 것 같아 느껴 스스로의 실력을 의심했었음. 결론적으로는 본인 실력이 아님. 이런 경우에는 기출 문제와 유사한 유형을 풀었을 시, 똑같은 풀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본인 실력이 맞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자료 해석을 예로 들자면 외워서 푸는 것 같이 느껴지는 문제 유형 분석을 해서 그 유형에 맞는 다른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함.

합격자 2

- 기초를 회독하다 보면 답이 기억나는 것이 당연함. 답을 찾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는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얻은 점수도 크게 의의를 두지 않았음. 대신 그 답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 문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두었음. 그 방식도 기계적으로 풀지 않고 문제 풀이의 방식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음. 기출이 너무 익숙하다면 1월쯤, 학원에서 강사님들이 출제하시는 기출 문제와 비슷한 스타일의 봉투 모의고사를 참고하면 좋을 것임.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풀어보시고 점수가 낮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길 바람.

Q3. PSAT 학원을 추천해주신다면?

합격자 1

- 베리타스, 한림, 프라임 세 군데가 가장 유명하나 개인적으로는 베리타스를 추천함. 한림법학원에서는 '언어 논리' 이나우 선생님 자료에서 석지수 선생님이 유명하신데 고가의 강의에 속함. 베리타스에서는 2주에 한 번 가격 행사를 하여 가격도 좋음. '자료 해석'은 현재 '1티어'라 불리는 선생님 강의 수강을 추천하고 '언어 논리' 신성우 선생님은 논리 파트 추천, '언어 독해'는 프라임의 박은경 선생님 추천함.

합격자 2

- 한 가지 학원만 추천해야 한다면 '베리타스'를 추천함. 신성우 강사님의 언어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논리 파트와 독해 파트를 잘 가르쳐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음. '자료 해석'도 조훈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좋은 강사님께서는 자료 해석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강점임. 다른 학원도 들으실 수 있다면 '상황 판단'은 최원석 강사님을 추천함. 최원석 강사님도 조훈 강사님처럼 체계적으로 유형을 나눠서 접근 방식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음.

Q4. 장시간 공부하는 팁이 있는지?

합격자 2

- 11시간 공부하였는데 11시간을 쭉 앉아만 있지 않았음. 중간에 기출 문제를 한 개씩 풀고 분석하면서 집중이 되지 않고 몸이 뻐근할 때는 잠깐 산책을 하고 걸어오는 등 바람 쐬시는 것을 추천함.

Q5. 기본강의까지는 수강하였는데 심화강의를 들을지 말지 고민입니다. 난이도 및 학생들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심화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격자 1

-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 올해 PSAT 커트라인은 210점, 작년은 215점. 작년에 비해 문제 난이도가 상승한 것에 비해 커트라인 점수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음. 재작년까지 200점 초반대를 웃돌던 커트라인이 상승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면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은 맞음.
- 그러나 심화 강의를 반드시 수강할 것을 추천하지 않음. 심화 강의는 내용에 따라 다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한 심화 강의는 추천, 기출 문제가 아닌 모의고사 문제를 바탕으로 한 심화 강의는 추천하지 않음.
-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심화 강의를 수강하는 것보다 수강 강사님들 네이버 프리미엄에 기출 문제를 분석해 주는 강의를 추천함.

합격자 3

-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스스로 느낌. 실제로 5급을 준비하던 분들이 지역 인재 7급 전형으로 넘어와서 준비하시기도 하기에 그런 영향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느낌.
- 본인의 경우 기본 강의만 수강하였음. 기본 강의로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강의에 포커싱이라기보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나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면 좋음.
-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이런 효과가 없을 시에는 심화 강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이 됨. 그러나 기출 문제를 좀 더 많이 분석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